



아름다운 문화유산 | 고려시대 꾸미개

고려시대 꾸미개

꾸미개(장신구)란 몸치장에 쓰이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로, 처음에는 자연의 재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만들었으나 문명의 발전에 따라 재료와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였다.

삼한의 하나인 마한에서 구슬을 옷에 꿰거나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사용한 기록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이고 있으며, 삼국시대 이후 금속세공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머리

꾸미개,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장식 등 수준 높은 금속 공예품이 많이 제작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몸치장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장신구는 점차 장식적, 주술적 기능을 넘어 부와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분의 상징으로 발달하였다.

고려시대 꾸미개는 통일신라시대에 비해 많이 남아 있



〈도 1〉 은제도금타출화문팔찌

지 않은데, 과대, 팔찌, 머리꾸미개 등이 눈에 띈다.(도 1·도 2) 그러나 세련된 문양을 정교하게 제작하는 금속공예기술이 크게 두드러져, 송나라 서경(徐兢)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事高麗圖經)}에서는 ‘고려의 공예기술이 극히 공교하다(高麗工技至巧)’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은제도금타출화문팔찌는 은을 이용하여 바깥 부분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눌러 높게 돌출시킨 타출기법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무늬를 조각한 후 전체에 도금을 한 것으로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와 같은 기법과 문양을 이용한 은제장도집과 은제타출표형병도 여러 점 보이는데, 문양이나 제작 기법 등이 크게 연관성을 보여 주목된다.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면서 장도, 침통, 바늘집 등 실용성을 겸비한 것도 많이 제작되며, 노리개, 뒤꽂이, 주머니, 향낭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성별, 신분, 연령에 따라서 사용하는

장신구를 달리 하였다.

고려시대 꾸미개 중 작은 금속제 꾸미개는 많은 예가 남아 전해지고 있다.(도 3) 순금, 은, 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은이나 동은 도금을 하는 예가 많고, 어딘가 부착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작은 구멍들이 있다. 정확한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사 결과 그 중 뒷면에 섬유질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있어 직물이나 의류에 달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꾸미개 표면에 나타나는 녹의 종류로 보아 땅속에서 출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꾸미개는 항상 대칭으로 쌍을 이루고 있으며, 모양은 대개 원형이고 간혹 방형도 보인다. 오리·원앙·시슴·학·거북 등 동물류를 비롯하여 잉어 등 어류와 연꽃·모란·매화·여지·석류 등 꽃과 열매, 상상의 동물인 용과 봉황, 현무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가 매우 다양한데, 모두 길상을 상징하는 무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길상적인 기원을 위해 만들어져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무늬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나 연꽃과 잉어, 연꽃과 원앙, 연지동자 등처럼 둘 이상의 무늬가 조화를 이루어 사용된 경우도 많이 있다. 한편, 신장이나 비사문을 투각한 예도 있어 불교적 의미를 담은 꾸미개도 제작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 2〉 은제도금타출화문팔찌

꾸미개에 보이는 뛰어난 도안과 세공기술은 당대 문화와 공예수준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들을 만든 제작기법은 투각, 타출 또는 주조로서 형태를 잡고 세부를 다시 끌로 음각한 다음, 그 위에 도금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교한 수법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 중기에 많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실제로 많은 예가 남아 있는 점을 볼 때 제작 및 사용은 고려시대 전시기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정교한 금속공예품은 장야서(掌冶署)에서 제작하였는데, 이들 꾸미개 역시 문양을 교묘하게 나타낸 고려시대 뛰어난 세공술을 보이고 있어 장야서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꾸미개는 각각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잉어와 연꽃은 조합하며 만든 금제 꾸미개가 눈에 띈다. 연잎 위로 뛰어오르는 잉어와 또 그 위로 피어 있는 연꽃과 연잎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타원형의 구도로 조화롭게 만든 금제 꾸미개이다. 잉어의 바늘 표현과 연잎의 잎맥 표현 등이 매우 정교한데, 얇은 금판을 틀에 대고 두드려 타출시켜 문양을 돌출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신 명 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